

# 한국교회 생태계와 선교적 교회개척

---

**양현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부교수, 실천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교회개척의 정의
- III. 교회개척의 당위성
- IV. 한국교회가 처한 생태계 분석
- V. 선교적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
- VI. 나가는 말

**[초록]**

본 논문은 교회개혁에 관한 논문이다. 교회개혁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사실은 교회개혁은 언제나 그 시대에 합당한 원리와 방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한국교회를 “교회 생태계”란 말로 분석하고 그 생태계에 합당한 교회개혁 원리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개혁을 “선교적 교회개혁”이라 필자는 명한다. 필자는 선교적 교회개혁은 다름 아닌 “사도적 교회개혁”으로서 사도들이 1세기에 사용했던 원리와 방법인데, 이것이 21세기 한국교회 가 소생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먼저 교회개혁을 간단하게 정의한 후, 교회개혁의 당위성을 성경적으로, 생태학적으로, 그리고 목회현장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교회생태계를 ① 비기독교 나라에서의 교회 ②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③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 ④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탈부흥시대의 교회), 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그리고 ⑥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교회 등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생태계에서의 교회개혁 방안을 필자는 선교적 교회개혁이라 명하고, 선교적 교회개혁은 ① 건물이 아닌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개혁, ② 복음전도를 그 방법론으로 삼는 교회개혁, ③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삼는 교회개혁, ④ 지역교회(마을교회, 지역 맞춤형 교회)를 세우는 교회개혁, 그리고 ⑤ 교회개혁자의 생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교회개혁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키워드:** 교회개혁, 교회개혁 정의, 교회개혁 당위성, 한국교회 생태계, 선교적 교회개혁, 사도적 교회개혁

논문투고일 2023.07.31. / 심사완료일 2023.09.01. / 게재확정일 2023.09.05.

## 1. 들어가는 말

교회개척이 어렵다고 말한다. 분명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개척이 어려운 이유는 상황과 조건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교회개척은 원래부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한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조건과 상황을 사용해 교회개척을 방해한다. 그래서 마치 상황과 조건 때문에 교회개척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교회개척 시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들 말한다. 차라리 이미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건강하고 자립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럴듯한 주장이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성적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축소와 소멸을 주장하는 매우 비성경적인 주장이라 하겠다.

교회개척은 지금까지 계속됐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개척에 대한 패러다임은 그 시대에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교회개척의 주된 원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다 구체적인 원리가 나타나 있다. 당연히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개척 원리들은 영원히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원리의 구체적 적용이 시대마다 그리고 문화권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1세기가 아닌 21세기이고, 여기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교회개척자는 불변의 성경적 원리의 적용과 실천에 있어서 자신이 직면한 현장과 상황에 맞도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개척자는 성경을 읽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의 시대를 읽어야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문화를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경적 원리를 자기 시대에 적용하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필자는 이러한 창조적 교회개척을 위해 먼저 교회개척의 정의와 당위성을 논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교회개척은 교회와 성도의 중단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지엄한 소명임을 밝히려고 한다. 그런 다음에 교회개혁과 관련된 지금의 상황과 문화를 “생태계”란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지금의 생태계를 분석해야만 성경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전략을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 과거의 답습과 모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장, 즉 생태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회개혁 원리와 방법론을 “선교적 교회개혁”이라 명제로 논의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이 시대에 합당한 성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교회개혁 원리와 방안을 제안하려 하는 것이다.

## II. 교회개혁의 정의

교회개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의미를 먼저 “개혁”(開拓)이라는 단어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문자적 의미는 “산과 들 따위의 일구지 않은 땅을 일구어 논밭으로 만들다.”<sup>1</sup>이라 할 수 있다. 즉, 개혁은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쓸모 있고 생산력을 가진 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교회개혁이란 무엇인가? 교회개혁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복음의 불모지인 비신자란 밭을 복음으로 기경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회개혁이다.

교회개혁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히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5:20과 고린도전서 3:6-11이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개혁을 설명하기 위해 농업과 건축업이란 유비를 사용하고 있다.<sup>2</sup> 바울은 교회를 밭과 집으로, 교회개혁자를 농부와 건축자로 표현한다. 교회개혁자를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건축을 위해 터를 닦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물론,

\*본 논문은 2023년 6월 24일, <한국선교신학회>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 출처: 위키낱말사전 <https://ko.wiktionary.org/wiki/%EA%B0%9C%EC%B2%99%ED%95%98%EB%8B%A4>. (2023년 7월 31일 접속)

2 Frank Viola, *Finding Organic Church*, 이남하 역, 『유기적 교회 세우기』 (서울: 대장간, 2010), 22-23.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씨로부터 교회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러한 성경적 의미는 영어 표현에서 더 명확하다. 교회개척을 영어로 “church planting”이라 하는데, “심음” 혹은 “파종”이라는 의미의 “planting”이란 단어야말로 교회개척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는 매우 적절한 성경적 용어라 하겠다.

저명한 교회개척 이론가 멀퍼스(Aubrey Malphurs)는 교회개척을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지상대명령을 이루어내기 위해, 어떤 지역에 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켜가는 계획된 과정으로서, 힘들지만 신나는 믿음의 모험이다”<sup>3</sup>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멀퍼스의 정의는 누구나 인용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훌륭한 정의이지만, 그러나 그가 미국 사람이기에 다분히 미국의 문화와 교회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즉, 한국의 독특한 교회개척 생태계가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교회개척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명 받은 자가,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복음전파를 통해 지역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모든 영적인, 현실적인 과정”<sup>4</sup>으로 짧게 정의한다. 필자의 정의에는 멀퍼스의 정의가 말하는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담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교회개척 상황과 문화와 생태계의 독특성을 반영했다. 이러한 필자의 정의에는 적어도 일곱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교회개척자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로 소명 받은 자”이다. 둘째는 교회개척자의 마음인데,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다. 셋째는 교회개척의 방법인데, “복음전파를 통해”이다. 넷째는 교회개척의 목표인데,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다섯째는 교회개척자의 사역인데, “목회하는”이다. 여기서 목회는 “목양”과 “관리” 두 요소로 구성된다. 여섯째는 교회개척의 속성인데, 교회개척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개척자의 생존인데, 교회개척자가 먼저 생존할 수 있어야만 하는 “현실적 과정”이다.<sup>5</sup>

3 Aubrey Malphurs, *The Nuts and Volts of Church Planting: A Guide for Starting Any Kind of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17.

4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척: 신학과 실천과 방향』 (서울: 솔로몬, 2019), 41.

5 각 항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한다. 각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양현표,

결국, 교회개혁이란 교회개혁자가 수행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교회개혁을 영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교회개혁은 영성으로만, 혹은 기도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교회개혁은 영과 육, 이상과 현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고군분투 노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경영 능력, 특별은총 영역의 말씀과 일반은총 영역의 전략 등이 어우러져 완성된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개혁은 도박이나 운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회개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미신적인 확신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간섭 100%와 교회개혁자의 책임 100%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 III. 교회개혁의 당위성

“들어가는 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과연 교회개혁이 지금도 필요하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미 세워진 교회나 잘 지켜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보편화 된 교회개혁 회의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주장은 성경적이지 아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합당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필자는 이제 여전히 교회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성경적 측면에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적 측면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1. 성경적인 당위성

필자는 “교회개혁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혹은 “교회개혁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전략이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제는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성경 속의 주인공들은

---

『사도적 교회개혁』, 42-53을 참고하라.

“실제로” 혹은 “상징적으로” 모두 교회개척자이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교회개척자로 쓰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의 여정을 따라간 아브라함(창 12:1),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갈렙(수 14:12), 미정복지를 정복하라는 여호수아의 외침(수 18:3) 등은 교회개척자의 모습이다.<sup>6</sup>

신약성경은 실제로 교회개척의 교과서이자 실천 교본이다. 예수께서 교회개척자이시며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가 교회개척자이다.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은 다름 아닌 교회개척 여행이다.<sup>7</sup>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교회를 심고(plants), 물을 주는 사역을 했다(고전 3:6-7).<sup>8</sup> 성경 에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은 실상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이다. 이상대명령을 비롯하여 성경에 나타난 많은 파송 메시지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개척이다(마 28:19-20; 막 16:15; 눅 24:46-48; 요 20:21; 행 1:8). 이처럼 교회개척은 성경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 2. 생태학적 당위성

교회를 유형교회(지상교회, 가시적 교회, 전투적 교회)와 무형교회(천상교회, 불가시적 교회, 승리적 교회)로 나누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상식이다.<sup>9</sup> 그런데 이러한 두 종류의 교회는 각기 특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무형교회는 주님 재림 시까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지만, 그러나 유형교회는 땅 위에서 생성소멸을 반복한다는 사실이다. 곧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는 유형교회는 없다는 사실이다. 유형교회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비올라(Frank Viola)가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sup>10</sup>라고 선언했던 바와 같이 교회는

6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척』, 55.

7 바울은 약 13년 동안 약 12,000km에 이르는 세 번의 교회개척 여행을 했으며, 적어도 14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Clint Clifton, *Church Planting Thresholds: A Gospel-centered Guide* (San Bernardino, CA: New City Network, 2016), 136.

8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on Your City*, 오종향 역, 『팁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744.

9 김혜숙 & 남정숙 역,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155-165. 제25장.

10 Viola, 『유기적 교회 세우기』, 23.

유기체 즉 생명체이기 때문이다.<sup>11</sup> 교회는 그리스도와 유기적 연합을 이룬 유기체적 모임이다(골 1:18; 2:19). 결국, 교회는 유기체로서 생명체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이다. 즉,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법칙이다.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법칙이다. 이러한 창조법칙은 유기체인 유행교회에도 적용된다. 이 땅의 가시적 그리고 지역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 사람들은 교회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실제로 죽었으며 지금도 죽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교회사가, 그리고 지금의 현상이 증명하고 있다.<sup>12</sup>

교회가 이렇게 죽는다면, 이 땅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태어나야만 한다. 그렇기에 교회개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켈러(Timothy Keller)는 말하기를 “지속적인 쇠퇴를 막으려면 평범한 수준의 교회개혁이 계속 있어야 한다. 모든 몸이 성장하려면 공격적인 수준의 교회개혁이 필요하다”<sup>13</sup>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방법 혹은 교회성장 방법은 어느 한 교회를 영원히 지속시키면서 그 교회가 비대(肥大)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한 교회가 생명이 다하면 죽게 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성장은 교회

11 교회가 유기체임을 드러내는 성경의 표현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요 15:5), “몸과 지체”(롬 12:4; 고전 6:15; 엡 4:16), “성령의 교통하심”(고후 13:13) 그리고 “머리와 몸”(골 2:19) 등의 표현은 교회가 유기체임을 나타내는 성경 속의 표현들이다.

12 김진호에 의하면, 대체로 연간 1천 개의 교회의 생겨나고 1천 3백여 교회가 문을 닫는다.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한국 개신교의 성공과 실패, 그 욕망의 사회학』(서울: 현암사, 2012), 156. 미국의 경우, 매주 135개 교회가 죽는다. 600개의 교회가 매달 죽고, 7,000개의 교회가 매년 사라진다. 매년 4,000개의 교회가 새로 시작된다. 이 중의 35%의 교회가 5년 안에 죽고 오직 2,600개 교회만이 유지된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면 매년 4,400개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 Clifton, *Church Planting Thresholds: A Gospel-centered Guide*, 152. “미국에서도 매년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개척된 교회 80%가 문을 닫는다.” 차스티브, “스페셜인터뷰: 미국 저니교회(The Journey Church) 대린 패트릭 목사,” 「목회와 신학」 통권 제305호 (2014.11), 45-51. 해마다 3,500개가 넘는 미국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Tim Chester & Steve Timmis, *Everyday Church*, 신대현 역, 『일상 교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서울: IVP, 2015), 27.

13 Keller, 『팀 켈러의 센터처치』, 761.

가 교회를 출산하는 방법(daughter church)으로 교회가 확산 혹은 배가(church multiplication)이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개척은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

만약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분명 그 가정과 그 나라의 현재만 있을 뿐 다음 세대, 혹은 미래는 없다. “있는 아이나 잘 키우자”라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너무 많다는 비판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느냐와 같은 어리석은 지적이다. 교회는 지금도 아주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더 많은 교회에 목말라하신다.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 교회개척은 현재 열악한 한국교회 상황을 대처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다. 초기 한국교회에 열화와 같이 일어났던 교회개척 운동이야말로 사도시대 상황과 유사한 지금의 한국교회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

### 3. 목회 현장적 당위성

교회개척은 성경적 당위성이나 생태학적 당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전개되는 목회 현장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다. 첫째는 효과성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다. 교회개척이 영혼 구원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교회개척 전문가나 복음전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sup>14</sup> 즉, 가장 효과적인 영혼 구원의 방법이 교회개척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14 켈러는 새 교회가 같은 규모의 오래된 교회보다 6~8배의 비신자 전도율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Timothy Keller & J. Allen Thompson, *Church Planter Manual* (New York: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2002), 30; Keller, 『팀 켈러의 센터치』, 754.; “그러므로 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교회의 숫자를 확실하게 늘리는 것이다.”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선교를 연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교회개척이다.” Tim Chester & Steve Timmis, *Total church : a Radical Reshaping around Gospel and Community*, 김경아 역, 『교회다움』 (서울: IVP, 2012), 125.; “교회개척이 왜 그리고 중요한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제일의 선교 전략이다.” Tim Chester & Steve Timmis, 『일상 교회: 세상이

의미에서 필자는 “교회개혁”과 “복음전도”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열정적이고 계속된 교회개혁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가시키는 방법임과 동시에, 이 땅의 전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개교회의 대형화 현상은 때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져다줄 수 있다. 즉, 눈에 띄는 대형교회의 출현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시각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착시현상이다. 실제로 한국의 기독교 신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sup>15</sup>, 몇몇 대형교회들은 성장하고 있다. 그 성장은 당연히 주변 교회들의 기신자 흡수 성장일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개교회가 비대해짐에 불과하다.

둘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을 보건대, 교회개혁의 당위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공식적으로 전체 인구의 19.7%에 불과하다(1995년 19.4%, 2005년 18.2%, 2015년 19.7%). 즉 길거리에서 만나는 열 사람 중에 2명도 신자가 아니다. 이백만에 육박할 것으로 추측되는 교회 밖 성도들(소위 말해 “가나안 성도들”)이 존재한다(각주 16, 17 참조). 이처럼 비신자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숫자에 연연하여 교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개혁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사실은, 교회가 많아 보인다는 사실, 혹은 개혁한 교회가 생존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는 목회자를 성숙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개혁은 당위성이 있다. 교회개혁은 한 소명자가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하는 데 매우 유익하고,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다. 교회개혁은 목회자에게 한 영혼의

---

이웃 삼고 싶은 교회, 133.: “하늘 아래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를 개혁하는 것.” C. Peter Wagn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편집부 역, 『교회개혁 이렇게 하라』 (서울: 서로사랑, 1990), 8.

15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합동 교단의 교인 수 상황을 살펴보면, 2012년 2,994,874명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2020년 2,382,804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612,069명이 감소했으며, 이것은 20% 감소로서 매년 평균 76,259명씩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한국 모든 교단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율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한다. 교회개척은 목회자를 진실로 겸손하고 낮아지게 함으로 예수의 심정을 배우게 한다. 즉, 목회자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개척 현장의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다. 필자는 교회개척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많은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목사는 개척을 해야 진짜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목사로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개척만큼 좋은 건 없다.” “교회개척을 하면 다른 것보다 개척 목사가 변한다.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다.” 이제 청빙 자리 찾다가 못 찾으면 어쩔 수 없이 교회개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개척을 하다가 안 되면 청빙 자리를 찾겠다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회개척은 소명 받은 자들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시도가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

#### IV. 한국교회가 처한 생태계 분석

앞에서 교회개척의 정의와 당위성을 살펴보았다. 교회개척은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교회개척이 이루어져야 할 현장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현장에 따라서 교회개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 현장을 대한민국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필자는 “생태계”란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교회가 처한 대한민국 상황을 먼저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야지만 그에 합당한 교회개척 이론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생태계 안에 머물고 있는가?

생태계는 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세계를 의미한다. 교회 역시 유기체로서 생물이며, 따라서 교회 생태계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사실은 생물은 주어진 그 생태계 안에서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또 다른 생태계를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교회도 지금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만 보다 나은 생태계를 창조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생태계가 열악하다고, 이러한 생태계를 만든 윗세대들을 향하여 비판이나

부념, 혹은 불만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선 교회가 살아남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지금의 생태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비기독교의 나라에서의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첫 번째는, 한국이 비기독교 나라라는 사실이다. 그렇다. 한국은 비기독교의 나라이다. 2025년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201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9.7%인 968만 명이다.<sup>16</sup> 물론 이 수치 안에는 200만의 이단과 100만의 교회 밖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sup>17</sup> 따라서 실제 정통적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국민의 12%에 불과한 600만 명 정도이다. 최근에 교회 밖 성도, 즉 소위 말해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었다는 보고가 있음을 참작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정통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은 예상치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길에서 만나는 10명 중에서 1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비신자의 나라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바로 선교지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에 불과하다.

16 “2015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120만 명 증가하여 968만 명이 되어 제1종교가 되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증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최윤식의 예측을 뒤집어엎는 통계임에는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첫째, 지난 30년간 비율이 그렇게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19.4%-18.2%-19.7%). 결국, 이 비율은 인구 증감에 따른 변화로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다만 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와중에 또한 무종교인이 56.1%가 되는 상황 속에서 선방이라 하겠다. 문제는 2025년에 실시될 조사 결과이다.

17 조성돈, “잃어버린 300만을 찾아라,” 『목회와 신학』 (2017.2), 170-174.;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로 추정해 본다면,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무려 758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198만 명을 제외한 560만 명이 개신교를 믿다가 무종교인이 된 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나안 성도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135.; 또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가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기독교인의 30%가 가나안 교인으로서, 전체 개신교인 인구 771만 명 중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승규, “한목협 조사 발표 ① 개신교인 비율 15%까지 떨어져” (2023년 3월 27일) <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2227> (2023년 7월 31일 접속)

## 2.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미 20세기 말 출생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 MZ 세대들의 우주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네 가지로 규정하는데, 첫째는 상대주의(해체주의), 둘째는 다원주의(종교 다원주의), 셋째는 감성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합주의이다.<sup>18</sup>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들은 기독교의 절대 진리,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배타적 구원론(exclusivism)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Your God is different from my God”이 포스트모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답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시대답게 각종 대체종교, 유사종교가 범람하고 있어서 교회는 실제로 이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3. 영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세 번째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권위와 영향력과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말이 있듯이 끊임없는 구설수가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성장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 등의 영향으로 변형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관련하여 김진호는, “경영학의 교회적 버전인 교회성장학의 전성시대로 인하여, 인문적이고 비평적인 현대 신학에 대한 무관심이 생겼고, 참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인식에 무감각해졌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 속에서

18 ① 상대주의(해체주의) : 기성 질서와 기존 가치와 도덕, 규범적 권위, 거대 담론의 부정한다. 모든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가치, 규범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더니스트들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 다원주의 : 상대방을 인정하는 관용과 여유가 최고의 덕목이다. 신앙을 강요 강조하는 것은 무식, 교만, 독선으로 간주한다. ③ 감성주의 :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행하고 믿는다. 성경과 교리보다는 체험, 신비, 느낌 중시한다. ④ 혼합주의 : 절대적 가치나 상위가치 인정하지 않는다. 탈 장르화(유니섹스/unisex, 팝페라/popera, 팩션/faction, 키덜트/kidult)를 즐긴다.

‘고립된 성’이 되었다”<sup>19</sup>라고 날카롭게 평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한 배금주의의 영향은 심각하다. 교회 세속화의 완결판은 배금주의라 하겠다. 개교회 이기주의, 상업적 교회 운영과 재정 비리, 세습, 직분 매매, 초대형 교회당 건축, 이단의 범람, 목회자의 성적 타락, 교회 내 양극화된 정치 이념화, 교회의 분열과 분쟁 등은 모두 배금주의의 결과인데, 오늘날 개신교의 오명이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종종 일어나는 대형 유명 교회들의 자책골은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에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sup>20</sup>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알 수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겨우 21%이다. 이 비율은 2020년보다 10.8% 추락한 숫자이다. 그나마 이 수치에는 기독교인의 옹호적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무종교인이 54.7%인데 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0.6%일 뿐이다. 한마디로 비신자들은 교회를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4.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탈부흥시대의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네 번째는, 한국 사회가 탈기독교(post-christianity)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탈기독교 사회란 서구 교회의 현주소를 묘사하는 말로서, 기독교가 더 이상 서구사회의 주류가 아님을 의미한다. 과거 4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 서구사회를 구성한 “기독교 왕국”(christendom) 시대의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기독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사적인 자리로 옮겨졌으며,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그 위치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sup>21</sup>

19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간다』, 137.

20 이 자료집은 2023년 2월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서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21 스투어트 머레이(Sturt Murray)는 후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을 다음 여섯 가지로 말하고 있다.  
① 중심에서 주변부로, ② 다수에서 소수로, ③ 정착민에서 체류자로, ④ 특권에서 다원성으로,  
⑤ 통제에서 증거로, ⑥유지에서 선교로. Sturt Murray, *Church After Christendom* (Milton

물론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비기독교 나라로서 서구가 경험한 기독교 왕국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석대학 장동민 교수가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 역시 유사 크리스텐덤 시대를 거쳤다.<sup>22</sup> 즉, 기독교가 외래 종교이자 마이너 종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로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기간을 의미한다. 소위 말해 한국교회의 부흥시대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구 교회에 적용되는 “탈기독교 시대”를 한국교회에 적용한다면 “탈부흥시대”로 말할 수 있다.

그렇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까지 이어진 부흥시대의 후유증을 지금 심각하게 앓고 있다. 필자는 지금의 한국교회 목회 생태계의 열악함은 대부분 부흥시대의 후유증이라고 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도 부흥시대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부흥시대의 교회관, 목회관, 구조와 조직을 마치 진리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5.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다섯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처했다는 사실이다. 2020년부터 2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 2년 만에 교회의 지형도를 바꾸어 버렸다. 첫째는 교회가 견지한 신학적 확신과 전통을 붕괴시켰다. 과거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버젓이 통용되고 인정되고 있다. 둘째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의 세속화를 부추겼다.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편리함과 자유로움에 익숙해졌다. 셋째는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했다. 교회와 국가의 서로 간에 관계는

Keynes, UK: Paternoster Publishing, 2005)

22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156-175.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었다. 넷째로 교회의 대 사회적 이미지가 이전보다 더 악화하였다.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진원지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으며, 교회 간의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갈등과 분열로 세상에 비쳤다.<sup>23</sup> 교회는 이제 이런 새로운 생태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숙제를 받게 되었다.

## 6. 양극화와 고령화 사회 속에서의 교회

한국교회가 생존하고 있는 생태계의 특성 다섯 번째는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고 고령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출간된 이 시대의 대한민국 트렌드를 분석한 두 권의 책이 있다. 하나는 교회와 관련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요, 다른 하나는 경제와 관련한 『트렌드 코리아 2023』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공히 “양극화”이다.<sup>24</sup> 빈부, 정치, 젠더, 진영, 정보 등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을 선교지로 규정한 장동민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sup>25</sup>이라고 주장함으로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꼬집었다.

양극화 사회 속에서 교회 간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목회자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쏠림 현상은 코로나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대형교회는 더욱 대형화되고 소형교회는

23 이성호,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분법적 시각 넘어야,” 『목회와 신학』 통권 제372호 (2020.6), 40.

24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제는 평균이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3 전망』 (서울: 미래의 창, 2022), 22.; 『한국교회 트렌드 2023』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격차 교회 서바이벌 목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교회 간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며, 작은 교회들은 그 격차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목회를 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양극화를 묘사하고 있다.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시대 2023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서울: 규장, 2022), 245.

25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398.

더욱 소형화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회 생태계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사회의 또 하나의 특성은 고령화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다. 2022년 고령자 통계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 8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이며,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기간, 즉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14%에서 20%로 바뀌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이 걸렸음에 비해 한국은 불과 7년이다. 한국 사회는 초스피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겠다.<sup>26</sup>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음은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회가 초고령화 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초고령화된 한국 사회보다 더 초고령화”<sup>27</sup> 될 수 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집필진들은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한국 사회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의 충격을 한국교회가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sup>28</sup>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역동성, 교인 규모, 그리고 재정 능력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생존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소위 말해 교회는 초고령의 늪에 빠지게 됨이 명약관화하다. 교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의 고령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V. 선교적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

이상에서 한국교회가 처한 생태계를 한국 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생태계는 교회개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생태계에서 굳어진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교회개척 패러다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26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 (2023년 7월 30일 접속)

27 최윤식 &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66.

28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160.

비판 의식 없이 답습하고 반복하는 교회개혁 이론과 방법이 지금의 생태계에서는 그 실효성이 없다. 소위 말해 “간판만 걸어도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과거 교회개혁 1세대들의 교회개혁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뀐 생태계에서 어떤 교회개혁 론(論)과 술(術)이 필요한가? 연구자는 그 대답으로 “선교적 교회개혁”을 제시하려 하는 것이다.

필자가 “선교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선교적”이라는 말이 어원으로 볼 때 “사도적”이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sup>29</sup> 그 의미는 모두 “보냄을 받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개혁은 사도적 교회개혁이라 할 수 있다. 선교사나 사도 모두 [교회개혁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이다. “사도적”은 “성경적”이란 말로 통하고, 따라서 “선교적” 역시 “성경적”이다. 사도적 교회개혁은 사도들이 사용한 교회개혁 원리를 사용하는 교회개혁을 의미한다. 사도들이 사용한 교회개혁 원리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개혁 원리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의 다른 말 역시 “사도적 교회론”이다. 특별히 이 시대를 초기 1세기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하곤 한다.<sup>30</sup> 앞에서 분석한 교회가 처한 여러 생태계

29 요 20:21은 교회개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본문이다. 이 말씀으로부터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는 “보내다”란 말이 두 번 사용되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것은 “아포스텔로”(ἀποστέλλω)와 “πέμπω”(πέμπω)이다. “보내다”라는 의미의 “아포스텔로”에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ἀπόστολος)가 나왔다. 또한, 이 두 단어를 라틴어 성경 불가타(Vulgata)에서는 모두 “미토”(mitto)로 번역하였다. 이 “미토”의 명사형이 미시오(missio)이고, 여기서 “선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Mission”이 나왔다. 결국, 성경에 기록된 “사도”라는 말과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사”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이다. 사도나 선교사나 모두 보내진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었다.

30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는 *Post-Modern Pilgrim: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란 책에서 “21세기 사역은 …… 1세기와 더 공통점이 많다”라고 했다. D. A. Carson, *Becoming Conversant with the Emerging Church*, 이용중 역, 『이머징 교회 바로 알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56에서 재인용.: 닐 콜(Neil Cole)은 지금 시대와 1세기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의 출현: 1세기의 로마 역할을 지금의 미국이 감당, ②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 1세기의 그리스어에서 지금의 영어로, ③ 지구촌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기술 문명의 발전: 1세기의 도로의 발달에서 지금의 기술 문명(인터넷) 발달, ④ 상대주의의 철학: 1세기의 빌라도 총독의 진리가 무엇이나에서 지금의 상대주의, ⑤ 난무하는 사이비 종교: 1세기의 온갖 이방 종교에서 지금의 사이비 종교로, ⑥ 문란한 성생활, 마약중독: 1세기 로마의 술과 유흥에서 지금의 타락으로, ⑦ 이슬람의 부흥. Neil Cole, *Church 3.0*:

역시 1세기 기독교가 처한 생태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다. 교회개척 역시 선교적 교회개척 혹은 사도적 교회개척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개척의 원리와 방법론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 1. 선교적 교회개척은 건물이 아닌 사람을 교회로 세우는 교회개척이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명제는 정통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다.<sup>31</sup>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배우기도 하며 가르치기도 하고 교제하며 봉사하는 그 ‘모임’이다.<sup>32</sup> 그렇기에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유기적 표현을 사용한다(고전 12:27; 엡 1:23; 골 1:18). 따라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여 공동체로 모아놓는 작업이다. 어느 한 장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교회 간판을 부착하는 일이 교회개척은 아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이 강가이든, 시장이든, 거리이든, 이방인의 집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갔다. 물론 그들이 다가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비신자였다. 그리고 그곳의 비신자들을 구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어렵게 구원한 소수의 사람을 모아서 공동체를 형성했다. 즉, 사도들은 비신자들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선교적 교회개척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이 교회라는 진리를 믿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공간을 교회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회화하는 것이었다. 교회개척의 대상이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대체로 비신자이었으며, 사도들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Upgrades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안정임 역, 『교회 3.0: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 (서울: 스텝스톤, 2012), 47-57.

31 하문호, 『기초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17-21.

32 양현표,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 (서울: 솔로몬, 2022), 17.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spirit)을 지녔다. 비신자 중심의 교회개혁은 사도들이 택한 교회개혁 방법이다.

이러한 사도들의 교회개혁 원리에 반하는 교회개혁이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해 물리적인 건물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개혁이다. 먼저 장소를 마련하고, 사람들이 그 장소로 모여들기를 바라는 교회개혁이다. 그래서 교회개혁을 위한 스피릿보다는 장소를 마련할 자본 마련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 모을까 하는 방법론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비신자보다는 기신자를 표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교회개혁이다.<sup>33</sup>

이러한 교회개혁 방법은 전형적인 한국적 교회개혁 방법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던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늘의 생태계에서 더는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적 원리, 즉 선교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적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방법은 한때 붐을 일으켜 통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린다. 건물 중심의 교회개혁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감히 단언한다. 초기 교회는 예배당 중심이 아닌 가정과 일터 중심이었다. 2세기 중반까지도 교회당은 없었다.<sup>34</sup> 그들은 거대한 하나의 회중보다는 가정 모임을 늘려갔다.

건물 중심의 교회개혁과 목회가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 있다.<sup>35</sup> 교회를 공간이란 개념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sup>36</sup>

33 기존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개혁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시작 시점에서 때로는 그것의 유익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신자들과 더불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예외로 여겨야 한다. 교회개혁 학자인 페인(J. D. Payne)은 말하기를 “오래된 성도들과 더불어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예외 규정으로 보아야만 한다.” J. D. Payne, *Apostolic Church Planting: Birthing New Churches from New Believers* (Downers Grove, IL: IVP, 2015) 23.

34 “기독교가 크게 확장되던 첫 두 세기 동안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흥병용 역,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서울: 복있는사람, 2010), 34.

35 부동산경매업체의 자료에 의하면,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경우가 2008년 181건, 2009년 227건, 2010년 299건, 2011년 251건, 2012년 272건, 2013년 상반기 153건이다. 황윤수, “포럼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8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 이웃과 하나되는 우리 교회』 (서울: 국내전도국, 2013), 8.

36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교인 한 사람의 환경, 상황, 사건이 전체 교회의 환경, 상황, 사건”이 되는 교회를 의미한다. 양현표, 『사도적 교회개혁』, 302. 공동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현표, “초기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늘 비대면 시대를 위한 목회 원리,” 『갱신과 부흥』 27 (2021),

교회개척의 개념을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더 큰 건물을 지으려 하기 보다는 새로운 모임을 개척하려고 해야 한다.<sup>37</sup>

## 2. 선교적 교회개척은 복음전도를 그 방법론으로 삼는 교회개척이다.

필자는 교회개척과 복음전도를 동의어로 간주한다. 교회개척과 복음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한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일 뿐이다. 사도들이 교회개척을 위해 사용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바로 복음전도이었다. 교회개척을 위해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회개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청중들의 상황에 적용하여 전달했으며, 청중들에게 회개할 것을 종용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즉 복음의 내용이었다.<sup>38</sup> 거리에서, 회당에서, 감옥에서, 강변에서, 개인 가정에서, 심지어 풍랑에 휩싸인 배 위에서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교회를 개척했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개척은 복음전도를 교회개척의 방법론으로 삼는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개척 원리와 반하는 교회개척이 있다. 그것은 소위 말해 이벤트, 프로그램, 시설 등을 앞세우는 교회개척이다. 이러한 교회개척은 어쩔 수 없이 비신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신자를 탈취해오는 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복음전도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오직 한 영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방법과 수단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부흥주의 혹은 성장주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부흥과 성장은 필요하지만 부흥주의와 성장주의는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교회개척 방법은 전형적인 한국적 교회개척 방법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던 개척 방법이었다.

323-325.를 참고할 것.

37 Chester & Timmis, 『교회다움』, 26

38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2:14-36; 3:11-26; 4:5-12; 5:29-32; 10:34-43; 11:4-18; 13:16-41; 15:7-11), 바울의 설교(20:17-35; 22:1-21; 26:2-23), 스테반의 설교(7:2-53)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교회개혁은 “번식”이 목표이지 “비대”가 목표는 아니다. 선교적 교회개혁 원리는 하나의 대형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의 교회에 안주하지 않았으며, 자꾸만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아직 세상에 비신자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이상 그들은 한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다. 드림센터(dream center)의 매튜 바넷(Mathew Barnett) 목사는 전형적인 성장주의를 목표로 한 목사였다. 그는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방법을 써 가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만일 네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다가간다면, 나는 너에게 ‘모두가 원하는 사람들’을 보내 줄 것이다”라는 음성이었다. 바넷은 고백하기를 “이후 그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sup>39</sup>라고 했다.

교회개혁자는 강단에서만 전도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도를 위해 거리에, 비신자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모자이크(mosaic) 교회의 담임 목사 어윈 맥머너스(Erwin McManus)는 지금도 주중에 지속적으로 비신자를 만나 복음을 증거한다. 그는 “제도와 강단 뒤에 숨어서 전도를 회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sup>40</sup> 톰 레이너(Thom Rainer)는 지금까지 통용되던 “말도 안 되는 전도법”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전도자로 사는 대신에 교회와 프로그램에 모든 책임을 더 넘기는 것으로 만족했다. 현대적인 교회 시설과 매력적인 교회 활동이 비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담당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구닥다리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한다.<sup>41</sup>

39 이상훈, 『Re Form Church: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82.

40 이상훈, 『Re Form Church』, 54.

41 Thom Rainer & Ed Stetzer, *Transformational Church*, 공인 역, 『교회혁명: 변혁적 교회』 (서울: 요단출판사, 2012), 298-299.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방법론으로 삼는 교회개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이득이 없다. 단지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왼쪽 주머니로 옮겼을 뿐이다. 복음전도를 통한 비신자 중심의 교회개척이야말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교회개척이다. 동시에 비신자 중심의 교회개척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교회개척 방법이다. 왜냐하면, 교회개척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블루오션은 이 땅 사람의 80%에 해당하는 비신자들이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개척자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처럼 “가서 증거하라”를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사도들이 사용한 교회개척 원리는 다름이 아닌 지상대명령이다. 페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적 교회개척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는 복음전도이다. 이러한 개념을 달리 설명하면, 복음전도가 결과적으로 새로운 제자들을 만든다. 그 제자들은 함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몸의 지역적 표현이 된다.<sup>42</sup>

### 3. 선교적 교회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삼는 교회개척이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동안 신학자들 간의 주요 논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1950년대 이후 진보 진영에서 제기되어 발전한 “미시오 데이”(missio Dei) 개념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세상 등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그 상호 관계 등에 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신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목적이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이 발전하여 정착하고 있는 교회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교적 교회론의 일부 각론은 보수적인 신학 진영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이 사실이다.<sup>4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sup>42</sup> Payne, *Apostolic Church Planting: Birthing New Churches from New Believers*, 18.

<sup>43</sup>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선교의 주체는 교회”라고 믿어온 한국의 보수신학 진영에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는 미시오 데이 신학 진영의 주장

선교적 교회론은 사도들이 품고 실천한 일관된 원리라 할 수 있다. 사도들은 각 지역에 독립적인 지역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적 아래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국, 교회개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의 개별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한 사도들의 교회개척과 대비되는 교회개척이 개교회 중심의 교회개척이다. 즉, 다른 교회와의 연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교회 성장과 부흥만을 목표로 하는 교회개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개척 형태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저 없이 말하고 싶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신학적 그리고 실제적 문제점이 자기 교회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교회주의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주변의 다른 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원인데, 그러한 형제 의식 없이, 자기 교회만이 하나님의 나라 소속인 양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비 연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비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개교회의 성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성장은 교회 개체 수가 많아지는 것이지 한 교회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 4. 선교적 교회개척은 지역교회(마을교회, 지역맞춤형교회)를 세우는 교회개척이다.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는 지역교회(local church)이었다. 그렇기에 성경은 교회 이름으로 지역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수신 교회를 묘사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전 1:2),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엡 1:1),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빌 1:1) 등으로 묘사하였다. 즉,

---

을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는 미시오 테이 신학을 보수진영 신학이 건널 수 없는 강 저편까지 끌고 가고 말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통적인 “하나님-교회-세상”이라는 도식을 “하나님-세상-교회”라는 도식으로 바꾸고 말았다. 즉, 그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도구 중의 하나로 그 존재가치를 추락시킨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교회중심적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보수신학에서 받아들이기에 쉽지 않다.

바울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특정한 지역에 자리 잡은 교회임을, 특정 지역의 문화와 환경의 제한을 받는 교회임을, 그리고 특정 지역의 독특성에 상황화 된 교회임을 암시하였다. 물론 교회가 지닌 이러한 지역성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말할 때 가시적인 지역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각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들이 그 지역의 교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다분히 지역에 상황화 된 지역교회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역교회란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지역교회는 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이다. 지역교회란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특정한 공동체가 자신의 지역에서 신실하게 증언하도록 공동체의 삶을 구축하는 것이다.”<sup>44</sup> 따라서 지역교회를 규정하는 우선적인 요소는 물리적 거리의 제한이다. 개척하는 교회의 목회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 안에서의 목회 자원과 영향력을 집중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The world is my parish)라는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은 그의 복음전도의 열정을 드러내는 말인데, 사실 이 선언은 지역교회의 성경적 원리를 경시하게 할 위험성이 있음이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 지역(local)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사도 시대의 지역(local)의 개념과 오늘날의 지역의 개념은 확연히 다르다. 즉, 사도 시대의 마을의 개념과 현재의 마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날 빠른 교통수단과 인터넷 등으로 인해 물리적 지역의 경계선이 무너졌음이 사실이다. 이제는 지구촌이라 일컫고 있으며, 지구 이쪽 편의 상황이 반대편에 전달되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개척자는 사도들의 본을 따라 의도적으로 물리적 거리를 제한하는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복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338.

오늘날 교회개혁에 자본주의의 원리가 도입되어 때로는 거대자본으로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교회개혁이 자리를 잡고 있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초지역적인 교회가 등장하였다. 반대로, 어떤 교회개혁자는 자신의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저 형편에 따라 그 지역에 터를 잡았으며, 언제든지 그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즉 지역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인맥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한 경우이다. 많은 개혁교회가 지역교회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의 고립된 외딴 섬이나 높은 담을 쌓는 성(城)이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교회론을 논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회개혁이 “이식과 창조”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과 복제”를 바탕으로 할 것이냐이다. 이식(移植)은 한 생물의 장기를 다른 생물의 몸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생물학에서는 동식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식은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이전(移轉)은 무엇인가를 단순히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것, 혹은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식은 현장이 고려되지만, 이전은 현장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전은 단지 모방과 복제로도 충분하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식과 창조성을 기초로 하는 교회개혁이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교회개혁이 필요하다. 모든 지상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교회이다. 그러나 각 교회는 각 현장에 알맞은 교회이어야 한다. 즉, 지역 맞춤형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각 현장에 적응하고 상황화 되어 그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지역교회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교회개혁을 보면 모든 교회개혁 방법이나 모습에 있어서 천편일률이다. 이 지역교회나 저 지역교회의 모습이 똑같고, 교회개혁 방법도 똑같다. 현장을 고려하는 창조적 상상력이 부족한 교회개혁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누군가를 교회개혁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 딱 맞는 교회를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개혁자는 다른 사람을 흉내 내는 교회개혁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성격, 기질, 은사, 문화적/학문적 배경, 리더십 스타일, 소통방식 등 자기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교회 형태를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교회개척이어야 한다. 자기를 먼저 분석 이해하고 또한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자원들을 기초로 한 자기만의 교회개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자기다운 교회를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 결국, 선교적 교회개척이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개척이라 할 것이다. 지역 맞춤형 교회로서 유일성이고, 동시에 교회개척자의 독특성으로 인한 유일한 교회이다.

##### 5. 선교적 교회개척은 교회개척자의 생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교회개척이다.

선교적 교회는 (대부분) 그 본질상 대형교회가 될 수 없다. 선교적 교회는 거의 작은 교회로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람 중심이고, 비신자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 중심이고, 하나밖에 없는 지역맞춤형 교회이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성장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 확신으로 인해 작은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성장은 추구하지만 성장주의는 배격한다. 하나님 나라의 대형은 추구하지만 개교회의 대형은 의도적으로 지양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개척은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는 교회개척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개척의 최대 장애물은 목사의 생존이다.

현재 한국교회의 60%가 미자립교회이다.<sup>45</sup> 개척교회가 실패하고 작은 교회

45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산하 <교회자립개발원>은 2021년 교단소속 11,412 교회 중 설문에 응답한 8,828곳의 자립 현황을 분류한 결과, 연간 예산 3,500만 원 이하인 미자립교회는 3,878개였으며, 이것을 미자립교회로 추정되는 미응답 교회 2,684개와 합치면, 6,562개가 미자립교회이다. 이는 교단 교회의 57.5%(응답교회만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보고한 교회 중 상당수가 미자립교회일 것으로 예상하여 실제로는 미자립교회 비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 교단의 이러한 통계는 한국교회 전체에

들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목사의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개혁은 목사의 생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교회개혁이다. 목회자의 생존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여기는 전통적 자세는 배격되어야만 한다. 인간의 먹고사는 생존은 실로 거룩한 영역이다.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역시 거룩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개혁자가 생존에 대한을 마련하는 것 역시 거룩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선교적 교회개혁자는 자신과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준비해야 한다. 생계 해결에 대한 자기만의 신학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개혁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는 자발적 가난(simple life, 장막에 거하는 나그네 삶, 검소한 삶)을 훈련해야 한다. 더불어서 겸직목사(bi-vocational pastor)가 되는 것 또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겸직목회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46</sup> 생존을 위한 수익 사업과 목회적 사역을 융합하는 형태의 생존 방안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텐트메이킹(tent-making) 삶은 생존을 위한 교회개혁자의 삶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된다. 교회사 속에서 자비량 목회의 모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교회개혁의 정의, 당위성을 논했으며, 교회개혁을 위한 한국 교회 생태계를 일곱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생태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개혁을 통해 다섯 가지를 찾아내었다. 필자는 그것들을 선교적 교회개혁의 원리와 방법이라고 명했다.

---

적용한다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전체 한국교회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은 1년 경상비 3천만 원을 넘지 못함으로 생존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다.

46 조성돈은 말하기를 “담임목사의 경우는 35.2%가 현재 겸직 중이고, 전임 사역자는 27.3%, 파트 사역자는 62.3%, 협력 목회자는 73.7%가 현재 겸직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평균 40%의 목회자가 현재 겸직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국교회의 40%가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조성돈,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실증 연구,” 『신학과 실천』 49 (2016), 255.

사도들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교회로 세웠으며, 복음전도를 그들의 최고의 무기로 사용했으며, 한 교회의 부흥보다는 전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표였으며, 각 지역의 독특성과 교회개척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교회를 세웠고, 그들 스스로 생존 방안을 찾았다.

이러한 사도적 교회개척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에서 성행한 교회개척과는 여러 면에서 상반됨을 주장하였고, 이제 한국교회는 사도들이 사용한 원리와 방법을 회복해야만 하는, 즉 선교적 교회개척이 회복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국교회는 사도적이 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자세와 사도적 야성을 회복하여 더욱 가열하게 교회개척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비로소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개척 시대가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개척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교회개척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원래 교회개척은 어려운 것이고 어려워야만 한다. 교회개척이 쉬운 시대는 비정상적 시대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전도 없이, 한 영혼을 위한 희생 없이 너무 쉽게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이다. 그렇게 쉽게 교회를 개척하고 쉽게 교회가 성장하던 비정상적 시대는 저물었다. 기독교가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난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다시 도약할 기회이다.

교회개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러나 쉽지 않은 영혼 구원의 방법이다. 사탄은 “이제 교회는 안된다. 특히 교회개척은 불가능하다”라는 패배감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심어주고 있다. 한국교회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기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어두운 밤바다의 풍랑 속으로 주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택하신 방법이다. 21세기는 여러 면에서 1세기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1세기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도적 교회개척이 흥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참고문헌]

- Carson, D. A. *Becoming Conversant with the Emerging Church*. 이용중 역. 『이머징 교회 바로 알기』.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 Chester, Tim. & Timmis, Steve. *Everyday Church*. 신대현 역. 『일상 교회: 세상이 이웃 삼고 싶은 교회』. 서울: IVP, 2015.
- \_\_\_\_\_. *Total church: a Radical Reshaping around Gospel and Community*. 김경아 역. 『교회다움』. 서울: IVP, 2012.
- Clifton, Clint. *Church Planting Thresholds: A Gospel-centered Guide*. San Bernardino, CA: New City Network, 2016.
- Cole, Neil. *Church 3.0: Upgrades for the Future of the Church*. 안정임 역. 『교회 3.0: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 서울: 스텝스톤, 2012.
-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홍병룡 역.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서울: 복있는사람, 2010.
-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정승현 역.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 Keller, Timothy. & Thompson, J. Allen. *Church Planter Manual*. New York: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2002.
- Keller, Timothy.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on Your City*. 오종향 역.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 Malphurs, Aubrey. *The Nuts and Volts of Church Planting: A Guide for Starting Any Kind of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1.
- Murray, Sturt. *Church After Christendom*.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Publishing, 2005.
- Payne, J. D. *Apostolic Church Planting: Birthing New Churches from New Believers*. Downers Grove, IL: IVP, 2015.
- Rainer, Thom. & Stetzer, Ed. *Transformational Church*. 궁인 역. 『교회혁명: 변혁적 교회』. 서울: 요단출판사, 2012.
- Sweet, Leonard. *Post-Modern Pilgrim: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0.
- Viola, Frank. *Finding Organic Church*. 이남하 역. 『유기적 교회 세우기』. 서울:

- 대장간, 2010.
- Wagner, C. Peter. *Church Planting for a Greater Harvest*. 편집부 역. 『교회개척 이렇게 하라』. 서울: 서로사랑, 1990.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자료집』. 서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 김난도 외.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3 전망』. 서울: 미래의 창, 2022.
- 김진호. 『시민 K, 교회를 나가다: 한국 개신교의 성공과 실패, 그 욕망의 사회학』. 서울: 현암사, 2012.
- 김혜숙 & 남정숙 역.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2.
- 양현표. “초기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늘 비대면 시대를 위한 목회 원리.” 『갱신과 부흥』 27 (2021), 307-342.
- \_\_\_\_\_.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 서울: 솔로몬, 2022.
- \_\_\_\_\_. 『사도적 교회개척: 신학과 실천과 방향』. 서울: 솔로몬, 2019.
- 위키낱말사전. <https://ko.wiktionary.org/wiki/%EA%B0%9C%EC%B2%99%ED%95%98%EB%8B%A4>. (2023년 7월 31일 접속)
- 이상훈. 『Re Form Church: 변혁을 이끄는 미국의 선교적 교회들』.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15.
- 이성호. “국가와 교회의 관계, 이분법적 시각 넘어야.” 『목회와 신학』 통권 제372호 (2020.6), 38-43.
- 이승규. “[한목협 조사 발표 ①] 개신교인 비율 15%까지 떨어져.” (2023년 3월 27일) <http://www.kpastor.org/news/articleView.html?idxno=2227> (2023년 7월 31일 접속)
- 이원규.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2010.
-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조성돈.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실증 연구.” 『신학과 실천』 49 (2016), 245-268.
- \_\_\_\_\_. “잃어버린 300만을 찾아라.” 『목회와 신학』 (2017.2), 170-174.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코로나 시대 2023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서울: 규장, 2022.
- 차스티브. “스페셜인터뷰: 미국 저니교회(The Journey Church) 대린 패트릭 목사.” 『목회와 신학』 통권 제305호 (2014.11), 45-53.

- 최윤식 & 최현식.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5.
-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  
&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0896&ref_bid) (2023년 7월 30일 접속)
- 하문호. 『기초교의신학: 교회론』.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1.
- 황윤수. “포럼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In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8회기 총회전도정책포럼: 이웃과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서울: 국내전도국, 2013.

**[Abstract]****Korean Church Ecosystem and Missional Church Planting**

Hyun Phyo Yang

(Chongsh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Practical Theology)

In this article concerning church planting, the author argues that church planting efforts are still essential to and remain justified for the kingdom of God. At the same time, church planting should always be done along principles and with method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ontext of the plant. To illustrate this point, the author analyzes the Korean church with respect to its “church ecosystem” (“context”) and draws out the principles that are appropriate to that context. This type of church planting can be called “missional church planting.” The author goes on to argue that missional church planting is akin to “apostolic church planting,” reflecting the principles and methods used by the apostles in the 1st century, and proposes that this alternative be the route to the revival of the Korean church in the 21st century.

To make this argument, the author first briefly defines church planting and then argues for its necessity and justification biblically, ecologically (contextually), and pastorally. In this light, the Korean church context is characterized by ① churches in non-Christian countries, ② churches in post-modern era, ③ churches that have lost influence and authority, ④ churches in the post-Christian era (post-revival era), ⑤ churches in the post-COVID-19 era, and ⑥ churches in a polarized and aging society.

The church planting that this context calls for is “missional

church planting,” which is characterized by ① a focus on building up people, not property; ② a reliance on evangelism, not programs or church-attraction activities; ③ a bigger picture focus on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not any individual church's enlargement; ④ the establishment and proliferation of locally contextualized churches, not national churches (megachurches); and ⑤ intentional strategies to develop and sustain church planters, not “leaving it up to God.”

**Key Words:** church planting, church planting definition, necessity of church planting, Korean church ecosystem, missional church planting, apostolic church planting